

##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여성의 형상화와 그 의미

최수현\*

— <차 례> —

- I. 서론
- II. 북원(北元) 여성의 형상화 방식
  - 1. 명(明)으로의 편입과 동화 실패
    - 1) 몽골족 북원공주와 한족 명 천사(天使)의 만남
    - 2) 패전국 불모로서 북원공주의 혼인 실현
    - 3) 동화의 실패와 주변화 된 북원공주
  - 2. 북원 여성의 인식 변화
    - 1) 명인에 대한 북원공주의 인식 : ‘문명’과 ‘무의(無義)’
    - 2) 북원공주에 대한 명인의 인식 : ‘무례(無禮)’와 ‘의기(義氣)’
- III. 이민족 여성 형상의 의미와 기능
- IV. 이민족 여성 형상의 소설사적 의미
-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하나인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여성의 형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향유되어 온 <유씨삼대록>에는 몽골족 여성이 한족 남성과 혼인하는 과정과 그 후의 궤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이민족에 대한 인식의 한 측면을 확인하게 해 준다.

<유씨삼대록> 속 몽골족 북원공주로 설정된 이민족 여성은 한족 명인 남성과의 만남, 패전국 전쟁 불모로서 명의 입성, 혼인 후 동화 실패와 주변화 되기라는 세 단계를 걸쳐 한족 내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 과정에서 혼인이라는 경험을 통해 명인과 북원공주는 서로 상대에 대해 가졌던 고정된 인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유씨삼대록>은 이민족에 대해 인간적인 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면서도 끝내 내부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배타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점은 이민족 여성에게 발화와 판단의 표출 기회를 주며 그 행동과 자질에 대해 비록 명을 중심으로 한 잣대로 평가한 것이기는 하나 의기가 있다고 평을 한다는 것에서, 배타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은 혼인과정의 위계화 된 채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민족 여성이 한족에 끝내 동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 같은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여성의 형상화는 한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국가에 대한 유부의 충성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족 내부에 있던 문제점들을 환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여성의 형상화는 이민족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시선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이민족의 문제를 사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유씨삼대록, 이민족 혼인, 몽골족, 한족, 복원(北元), 명(明)

## I. 서론

<유씨삼대록>은 <유효공선행록>의 후편으로, 명(明) 홍치제(弘治帝)에서 융경제(隆慶帝)에 이르는 시대를 배경으로 유씨 가문 인물들의 결혼생활과 그 가문의 번성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 그 제명이 실려 있어 국문장편소설 가운데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향유되었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국문장편소설로는 많은 수인 44종의 이본이 발견되고 있어<sup>1)</sup> 조선후기 지속적으로 널리 향유되었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1) 조희용,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471~475면.

<유씨삼대록>에는 한족 남성과 몽골족 여성의 혼인이 16권부터 18권 중반까지 비중 있게 그려진다. <유씨삼대록>은 이민족인 몽골족 여성에게 직접 발화를 하게 함으로써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뿐더러, 결혼 이후의 삶의 과정도 서술함으로써 혼인을 통해 빚어지는 이민족 간의 다종다양한 인식을 포착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이민족 여성의 형상은 이 작품의 이민족 내지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족과의 만남은 내부인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준다는 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부로부터 온 충격으로 인해 내부인의 결속을 강하게 하거나 그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던 문제를 환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씨삼대록>을 비롯한 국문장편소설에는 종종 이민족이 등장한다. 전쟁, 표류, 피신 등의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이민족과 맞닥뜨린다. 이 가운데 이민족과의 접촉의 계기로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전쟁이다. 그런데 대체로 송(宋)과 명(明)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이민족과의 전쟁은 정형화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이민족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중심 가문 남성들의 뛰어남과 충성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 치르는 전쟁에서 이민족은 정복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며, 전쟁이 종결되고 나면 ‘적’이었던 이민족이 교화를 받아 온순해졌다는 서술자의 언급이 뒤따를 뿐 이민족 간에 이루어진 접촉의 실상에 대해서는 포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이민족과의 혼인담은 이 소설의 이민족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족 남성과 혼인하기를 원하는 이민족 여성의 목소리, 이민족 여성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한족 남성들의 태도, 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이 다각도에서

그려지고 있어 이민족 간 동화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유씨삼대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전편인 <유효공선행록>과의 관련 양상, 삼대록계 소설로서의 서사 구조적 특징, 주요인물의 특징, 주요갈등의 특징, 작가의식, 예법의 형상화 등 다방면의 연구가 축적되어 <유씨삼대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sup>2)</sup>

선행연구에서는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이민족 여성을 혼인 당사자인 소경문과 그의 한족 출신 첫째부인 문창군주의 갈등을 살피는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했다. 박일용<sup>3)</sup>은 <유씨삼대록>의 핵심갈등을 부부갈등

2) <유씨삼대록>의 선행연구로는 이수봉, 『가문소설 연구』, 『동아논총』15, 동아대출판부, 1978; 김현숙, 『<유씨삼대록> 연구-삼대기 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이승복,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7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 최길용,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07, 국어국문학회, 1992; 조용호, 『『유씨삼대록』의 서술론적 연구』, 『한국고전연구』1,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6;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제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문화』2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조광국,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의 경우』, 『개신어문연구』제26집, 2007; 차충환, 『고전 국문장편소설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발췌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어국문학』149, 2008;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5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상례 서술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제28집, 2009;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 연구- <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제19호, 국어국문학회, 2009; 한길연, 『『유씨삼대록』과 『임씨삼대록』의 비교연구-환상성의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제38권 제4호, 2010년;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예법에 관한 연구, 한국한연구 3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등이 있다.

3) 박일용, 앞의 논문, 216면.

으로 파악하면서 그 중 소경문과 문창군주의 부부갈등은 이민족과의 혼인을 주선한 장인에 대한 불만으로 빚어진 것으로 국가의 문제를 들어 가정의 질서를 훼손하려는 장인에 대한 반감을 아내에게 표출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조광국<sup>4)</sup>은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부부캐릭터 조합을 살펴보면 소경문과 문창군주의 조합을 1부1처를 고수하는 군자지향형 남편과 다처를 권유하며 투기를 보이지 않는 여사지향형 아내의 조합으로 파악하고 후에 들어온 이민족 여성에 대해 오랑캐 나라의 공주로서 명나라 사신에게 반하고 부친의 분노로 위기에 빠진 사신을 구해 마침내 그와 혼인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창출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장시광<sup>5)</sup>은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여성수난담을 살펴보는 가운데 문창군주의 수난을 웅서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웅서갈등을 장인과 사위의 오랑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양상이 조선후기에 전개된 인물성동이 논쟁을 연상시키나 허구와 현실을 접맥시키는 작업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는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이민족 여성 및 그 혼인이 소경문과 문창군주의 갈등 원인이 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방향이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이민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다보니, 혼인 당사자인 이민족 여성의 목소리가 소외된 채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이민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이민족 여성의 형상화된 방식과 이민족에 대한 인물들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0권 20책 <유씨삼대록>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4) 조광국, 앞의 논문, 81면.

5) 장시광, 앞의 논문, 240면.

## II. 북원(北元) 여성의 형상화 방식

### 1. 명(明)으로의 편입과 동화 실패

#### 1) 몽골족 북원공주와 한족 명 천사(天使)의 만남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이민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이민족을 형상화하는 방식과 이민족 여성과 한족 남성의 혼인 과정에서 나타난 이민족 간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민족 간에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남이 있어야 한다.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두 민족은 북원인(北元人)인 몽골족과 명인(明人)인 한족이다. 이들이 만나게 된 계기는 북원의 침입을 저지하려 명의 천사(天使)가 파견되면서이다. 천사로 온 소경문에게 북원의 양성공주가 반하면서 두 민족 간의 혼인담이 시작된다.

이 혼인담에서 <유씨삼대록>은 두 민족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몽골족과 한족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민족의 구분은 조상을 통한 정체성의 확인, 서로에 대한 호명의 차이, 의복 및 문물 제도의 차이를 통해 표현된다.

첫째,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조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써 민족의 차이를 드러낸다. 양성공주를 비롯한 북원인들은 조상을 원(元)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을 몽골족으로 표현한다. 북원왕은 천사 소경문에게 원을 멸망시킨 명은 누대에 걸친 원수라며 원의 마지막 황제 혜종(惠宗, 1320년~1370년)의 옛 도움을 회복<sup>6)</sup>하고자 명을 침입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양성공주도 항복할 때에 북원을 멸망시키지 말고 남겨두어 원의 전

6) “번왕이 대로 왈 명국이 강하믈 유세혀여 우리 원을 멸흐니 이는 적세 원쉬라 내 이제 경국병을 니르혀 명국을 삭평혀여 구훈을 설흐고 혜종의 옛 도움을 회복고더 흐거 놀” <유씨삼대록>16권 6면.

성기 때의 왕인 세조[쿠빌라이(忽必烈), 1215년~1294년]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sup>7)</sup>한다. 이와 함께 서술자도 복원의 공격을 언급할 때에 복원인을 원나라의 남은 유민들<sup>8)</sup>로 지칭한다.

복원은 실제 역사상 명에 의해 원이 멸망하고 난 후 원의 남은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다. 원의 유민들로 구성되었던 복원의 초기 민족은 몽골인이 대다수였을 것이나 <유씨삼대록>의 배경이 된 명의 가정제[嘉靖帝, 1507~1566]<sup>9)</sup> 때에 이르면 복원이 세워지고 난 후 약 170여년이 지난 시점으로 원 황제의 후손들은 끊기고 오이라이트를 비롯한 주변부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sup>10)</sup>

때문에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복원인들을 원 황제의 직계 후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유씨삼대록>의 양성공주를 비롯한 복원인들은 자신들을 원의 후예로 규정짓고 한족과는 다른 몽골족임을 내세운다. 뿐만 아니라 명인들 역시 복원왕을 원의 후손으로 규정한다. 양성공주와 동렬에 놓이는 소경문의 첫째부인 문창군주는 양성공주에 대해 원 황제의 후손이기에 또한 귀인<sup>11)</sup>이라고 언급한다.

복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원의 후예이자 몽골족으로 설정하는 것

7) “엇디 우리 원으로 하여금 밋춤니 혼 나라홀 두어 세조의 향화를 닛게 아니시리오” <유씨삼대록>16권 54면.

8) “원도 나쁜 부락이 북방의 미만하여 대명 괴쉬 쇠흥고 녀년이 오래므로써 그옥이 쥬 나라 솟출 먼디고더 뜻이 잇는디라” <유씨삼대록>16권 1면.

9) 명 12대 황제로 재위기간은 1521~1566년이다. <유씨삼대록>에서 복원과 명이 전쟁을 벌인 시기는 가정 16년이다.

10) 미야와끼준코[宮脇淳子], 조병학 역, 『최후의 몽골유목제국』, 백산출판사, 2000, 115~152 참조.

11) “군쥬 쥬파를 흘너 명쥬를 보고 정식 왈 양성공쥬는 원테의 조조이니 또흔 귀인이오 위인이 세속의 빠혀나니 성명이 네우 하샤 네로 소군의게 도라오니” <유씨삼대록>17권 45면.

처럼 소경문을 비롯한 명인들은 자신들이 이민족인 원을 중원에서 멸망시키고 명을 세운 주원장의 후손임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언급<sup>12)</sup>을 지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몽골족과 자신들 한족을 구분 짓는다.

둘째, <유씨삼대록>에서 두 민족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다르게 나타난다. 원의 후예임을 내세워 몽골족이란 정체성을 내세우는 복원인과 주원장의 후손임을 내세워 한족이란 정체성을 내세우는 명인은 호칭을 통해서도 서로를 구분한다.<sup>13)</sup> 몽골을 칭하는 표현으로는 ‘달자’, ‘몽고’, ‘홍노’, ‘오랑캐’, ‘번국’, ‘호국’ 등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달자’와 ‘몽고’는 몽골족을 칭할 때 빈번히 사용되는 호칭으로 명인들이 몽골족을 부를 때와 몽골족 스스로가 자신들을 칭할 때에 함께 사용된다. 한편 복원인들이 명인들을 부를 때에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호칭의 차이는 곧 상대방이 나(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의복 및 문물제도의 차이를 통해 두 민족을 구분 짓는다. 복원왕

12) “당초의 호원이 송을 멸하고 비린 뜻글이 텃하를 더러이니 우리 태조 고향에 신문성 무후사 삼척검을 잡고 의병을 내리혀 딴우량 당스성의 무리를 강남의 가 멸하고 원순대를 사막으로 내치사 막남을 뿌려 묵히시매 스이 니공하고 호월이 일개 되어 인덕의 미출 배 아니어늘 녀성이 상송하여 금턴지 명을 니으사 텃해 태평히미 복신이 거기소의 동성이 공지함 거거늘” <유씨삼대록>16권 7면.

13) “홀연 두어 오랑캐 큰 통의 미시를 담고 양 두어홀 잡아 가다가 더 거동을 보고 그 등 하나히 나아와 무르던 엇던 사름이 의관 제되 다르거늘 이러듯 모다 안갓노노 종재 왈 우리는 둥국 스신으로 이 나라히 왔더니 번왕이 텃스를 잡아 이 따히 보내니 낭식이 끈혀져 당춧 죽게 되었는디라 혼 그릇 미시를 적션홍를 바라노라 달지 휴연 왈 둥국 지상이 이긋지 곤히시미 엇디 감창티 아니히리오 내 므츨 벗을 더접혀라” <유씨삼대록>16권 18면; “이욱고 저른 도시 용피 신선 갓고 황관 학창의로 준마를 타고 와 달자로 더브러 드러와 텃스를 보고 진막하고 닐오더” <유씨삼대록>16권 21면; “달지 날마다 와 병을 못고 병구의 맛 갖게 음식을 공급하니 증세 날노 차복하나 므츨너 뜻을 변치 아니” 일행이 다 감동하여 스싱을 흥가지로 하고 므음을 밧고디 아니” 그 통의를 감동히미러라” <유씨삼대록>16권 22면.

은 소경문을 부마로 삼아 복원에 데리고 있고자 소경문의 동의 없이 혼인식을 진행한다. 이때 양성공주의 혼례복은 <유씨삼대록>의 한족 여성들이 혼인식 때 입었던 의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묘사된다. 혼례를 올리러 온 양성공주의 모습은 붉은 비단으로 머리를 싸매고 패랭이꽃을 수놓은 소매가 좁고 검은 긴 옷을 입고 무릎까지 오는 검은 목화를 신은 것<sup>14)</sup>으로 묘사된다. 이는 <유씨삼대록>에서 혼인할 때의 한족 여성들을 묘사하는 것과 변별된다. 혼인 때의 한족 여성들에 대한 묘사는 혼례복이나 의상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운 얼굴이나 맑은 눈동자와 아름다운 자태에 집중<sup>15)</sup>된다. 흑여 의상을 묘사하더라도 붉은 치마를 입은 정도에서 언급이 간략하게 나타날 뿐<sup>16)</sup>이다. 이처럼 두 민족의 의복의 차이는 소경문이 복원에서 혼인을 거절해 유배가 있을 때 도움을 주러 온 몽골인이 소경문의 옷을 보고 의관이 다르다고 지칭하는 등에서도 확인된다. 두 민족이 서로 간의 다름을 확인하는 모습은 제도의 차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패전국 볼모로 온 양성공주가 명 황제를 알현할 때에 의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명나라 사람들은 의복제도와 언어가 다르다고 여겨 양성공주의 모습을 낮설게 여긴다.<sup>17)</sup>

14) “니궁으로서 빅 여인 호네 일위 공쥬를 붓드러 던샤의 니르러는 텡스와 모든 종재 눈을 드러 보니 그 녀지 붉은 김으로 머리를 빠미고 스매 좁은 거른 긴 오시 석독화를 슈 노하시며 두 무릅히 오르는 거른 휘를 신어시니 얼굴이 옥 갓흐며 낭목이 별 갓흐여 영치 동인호고 즈식이 절세흐나 제되 고이호고” <유씨삼대록>16권 13~14면.

15) 소경문의 큰처남인 유관의 부인 설소저의 혼인날 모습은 다음과 같다. “신부를 볼시 아름다운 용안과 절세호 기질이 진것 폐월슈화지용이오 팀어낙안지티라 팔츠 아황과 성전 운빈이 강산슈귀를 거두엇고 성안화협의 일만즈티를 띄어시며 덕성이 유환호고 네피 정숙호여 숙녀스덕이 겸비하니 만췌 드토아 하례호고” <유씨삼대록>9권 4면.

16) 소경문의 장인 유세형의 둘째부인 장혜앵의 혼인날 모습에 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당시 충 〃 옥계로 조차 긴 드리를 오르매 진슈아미는 화관 아리 느죽호고 성전운빈은 보옥이 어러여 출풍이 니러나매 홍상치의 표 〃 히 부치이니 쇼쇄호 풍취와 헤아흔 티되 던각의 어른겨 표연이 신선 갓흐니” <유씨삼대록>2권 27~28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씨삼대록>은 조상의 설정, 호칭의 구분, 의복 및 문물제도의 차이를 통해 몽골족과 한족이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구분 짓고 있다. 이같이 몽골족과 한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두 민족을 구분 짓고 다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유씨삼대록>이 이민족에 대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식하려 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임씨삼대록>을 비롯한 국문장편소설에서 이민족으로 설정된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이방의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로 등장하기도 하며, 대개 그 호칭은 ‘오랑캐’로 나타나고 그 모습은 우스꽝스럽거나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유씨삼대록>은 이민족의 계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뿐더러 실제 그들이 한족과 다른 문화 및 제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상상에만 의존해 그린 이민족이 아닌 인간화 된 모습으로 이민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2) 패전국 볼모로서 복원공주의 혼인 실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두 민족의 혼인 과정은 <유씨삼대록>에서 복원공주가 명에 유입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은 혼인이 성립하는 공간과 성립될 때의 혼인 당사자들의 신분을 통해 위계화 된 구도로 나타난다.

이민족과의 혼인은 이민족을 자신들의 내부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유씨삼대록>에서 몽골족 복원인들

---

17) “드디어 몽고 세자와 공궤를 단디의 브르라 하시니 세자 텡목화와 양성공궤 네관의 인도함을 인하여 단디의 나이가 만세를 부르고 디하의 부복하니 이제 이백 년 태평의 민안 구일이라 몽고의 의복제도와 어음이 다 동화와 다르니 문무빅관이 다 눈을 기우려 아니 고이히 너이리 업더니” <유씨삼대록>17권 23~24면.

은 이민족인 명인과의 혼인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 민족이 다른 두 인물이 혼인 후 살아갈 곳을 복원으로 생각한다. 이에 비해 명인은 혼인 후 거주할 곳을 생각하기 전에 이민족인 복원인과의 혼인 그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처럼 이민족과의 혼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 혼인하게 되는 계기로 <유씨삼대록>은 전쟁을 동원한다. 실상 이민족이 국경(성)의 경계를 넘는 것은 남몰래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천사로 온 소경문이 복원의 침략을 저지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명은 결국 복원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은 명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몽골족 복원공주와 명 천사 소경문의 혼인이 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때 복원공주의 신분은 더 이상 공주가 아닌 전쟁불모의 지위로 그 위치가 강등되어 나타난다.

양성공주와 소경문의 혼담이 나온 것은 복원공주가 소경문에게 반해서이다. 양성공주는 평소 복원에 인물이 없다고 여겨 명의 남성과 혼인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양성공주는 천사로 온 소경문을 보고 자신의 짝이라고 여겨 혼인하고자 하며, 복원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반면 양성공주나 복원왕이 한족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과 달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경문은 복원인과의 혼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복원왕의 구혼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로 국법을 위반한다는 점, 자신은 이미 혼인을 한 몸이라는 점, 혼인 후 양성공주가 명에서 살면 복원왕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sup>18)</sup>을 들어 혼인을 거부하

---

18) “평당이 텅파의 십분 차악하여 널오디 나는 텅도 대신이라 군명을 맞즈와 번국을 무순함매 왕화를 붙이며 네의로 ㄱ르치미어늘 었디 외국의셔 결진하여 국법을 어즈러이리오 국왕의 고견호는 뜻이 은근흐나 진실노 분외에 일을 감히 밧뜨디 못홀 한 아니라 내 일즉 취쳐흐 사름이니 귀국 공주의게 욱되디 아니며 공췌 날을 쓰라 만니의 종가함매 스싱영결이니 부녀의 상니호는 정신 참담홀디라 출하리 본국의셔 중요로운

며, 소경문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명을 생각한다.

이처럼 복원에서 불가능하던 이들의 혼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을 계기로 명에서 이루어진다. 혼인이 이루어질 때 소경문과 양성공주의 신분은 이민족에게 타협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명의 신하와 패전국의 전쟁 불모이다. 이는 두 사람의 복원에 있을 때의 신분 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패전의 결과로 양성공주는 전쟁불모가 되어 명에 들어오게 된다. 명은 복원의 또 다른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원 세자를 전쟁 불모로 잡아 가는데, 이는 양성공주가 세자와 함께 전쟁 불모로 끌려가는 것을 자원하기 때문이다. 양성공주가 전쟁 불모를 자원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국에 홀로 있을 세자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양성공주의 불모 자원은 소경문뿐만 아니라 복원인들에게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할 정도<sup>19)</sup>로 평범한 행동은 아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 시점까지도 양성공주는 소경문만 허락한다면 복원이 아닌 다른 곳이라도 가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양성공주의 신분은 왕에게 사랑받던 공주로서가 아니라 패전국의 불모에 놓여있다. 때문에 양성공주와 소경문의 혼인은 양성공주가 비단 소경문을 보고 반해서 혼인하고자 했을지라도 그 사안 자체는 국문장편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애정 욕망을 가진 여성이 황실의 사혼지를 받아 사모하던 남성과 혼인하는 것이 아닌 전쟁 불모의 처리 방안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부마를 어더 히로흐만 굶디 못흐니 여러 가지 불가흐미 만흔디라” <유씨삼대록>16권 10~11면.

19) “왕이 삼일당의 나 전별흐고 즈녀의 손을 잡아 츠마 써나디 못흐디 공쥬 즈약히 위로흐고 길히 오르니 견재 그 뜻을 고이히 녀여 세즈는 불모로 가거니와 공쥬의 즈원흐른 비인정이라 흐여 아니 의심흐 리 업더라” <유씨삼대록>16권 61면.

이는 패전국 볼모인 양성공주의 처리 방안을 두고 장인 유세형과 소경문이 갈등하는 것에서 잘 확인된다. 소경문은 복원이 아닌 명에서도 이민족인 양성공주와 혼인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설령 혼인하면 남들이 복원에서 이미 혼인했던 것이라고 혹 오해하지 않겠냐며 거부<sup>20</sup>)한다. 황제의 명령에도 계속 거부하는 소경문을 두고 유세형은 데리고 온 전쟁 볼모를 그대로 둘 수 없으며,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볼모를 한족과 혼인시켜 방비해야 한다고 하며, 이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국가의 문제라고 언급<sup>21</sup>)한다. 전쟁 볼모의 위치에 놓인 양성공주는 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낮은 몽골족 여성이며 국가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이자 신하들 가운데 누군가는 떠맡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복원에서 이민족 여성이 한족 남성에게 혼인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것은 사적 차원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결과

---

20) “평당이 불열 탄 왈 더 공주의 위인인족 기특하고 뜻인족 감격하나 여러 가지 불가하니 쇼성이 비록 용넌하나 엇디 이덕으로 친을 미크며 흐물며 혼인은 인눈대시어늘 이 빌리로 병혁이 니러나고 몽고의 격세 드러가 도당이 바야흐로 의심하시니 디경의 잇거늘 그 일을 실희와 호녀를 취흥족 사람의 춤 밧는 꾸지람을 일위고 쇼성의 슬 뜻이 예분호를 춤디 못홀 배라” <유씨삼대록>17권 15면.

21) “평당이 크게 불열하여 오히려 고스브지호거늘 진공이 정식 왈 군이 호갓 둥국 대신이 이덕의 녀세 되미 옥됨만 알고 국가의 동흔 거슬 맛다 외환을 방어호를 아디 못호는도다 이제 텃목화를 도라보내여 화이의 인심을 사고 양성을 머뜨러 족호를 맞진족 하니흔 그 원을 일위고 하니흔 군이 국가 휴적을 호 가지로 하여 국개 다시 복을 도라보는 근심이 업스리니 엇디 쇼 〃 지힘으로 국가 둥스를 싱크디 아났노뇨 남입 쳐세의 호 호녀를 니르디 말나 몸이 만릭디방의 이셔도 그 도를 흥호리니 군이 이제 양성을 취호므로 신명의 해롭고 흥호의 막힐 배 이시리오 이는 부유의 석은 말이로다” <유씨삼대록>17권 29면; “양성공주의 친스는 네 만일 결년호 일이 업서 공췌 너를 쫓와 오디 아나시면 어느 사람의 가호디 아니며 국가 식녹재 뉘 감히 스양호여 볼모를 맞디 아니리오마는 평일 작녹을 밧즈올 재 이덕이라 피연호여 밧디 아니면 이는 국스를 판망호미라 죄 쏘호 둥치 아니라” <유씨삼대록>17권 76면.

명에서 혼인이 이루어질 때에는 더 이상 사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족 내에 이민족 여성이 편입 되는 것은 애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족 내로 들어오는 이민족 여성은 이민족 국가에서 본래 지녔던 신분이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강등된 지위로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몽골족과 한족의 혼인 형상은 한족을 내부에 몽골족을 외부에 위치지우며 그 안에서 한족과 몽골족이 위계화 되고 있다.

### 3) 동화의 실패와 주변화 된 복원공주

소경문의 첫째부인인 문창군주의 교화를 입은 양성공주가 예법을 갖추게 되면서 소경문이 한 달에 20여일을 문창군주와 10여일을 양성공주와 지냈다는 서술자의 언급에 따르면 <유씨삼대록>에서 양성공주와 소경문의 혼인 생활은 화목한 것처럼 비취진다. 그러나 서술자의 위와 같은 언급이 있기 전까지 양성공주가 소부에 들어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과 소경문과 갈등하는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어 실은 혼인 후 양성공주의 생활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복원출신의 몽골족 여성이 동화되지 못하고 주변화 된 점은 세 가지를 통해 확인된다.

첫째, 혼인 후 양성공주가 곧바로 소경문과 문창군주의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모된다는 점이다. 명에 들어온 양성공주는 원하던 소경문과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다. 이는 혼인 직후부터 소부와 유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데 양성공주가 도구화되기 때문이다. 소경문은 혼인 첫날 양성공주를 미인이자 자신을 여러 차례 구해준 인물로 규정하고 후대하겠다고 마음먹고<sup>22)</sup> 이민족으로서 대하던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이를 놓고 보았을 때 이들의 혼인 생활은 적어도 민족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런데 오히려 혼인 초기 양성공주는 소부에서의 입지에 대해 불안해한다. 소경문이 양성공주와의 혼인을 주선한 장인에 대한 불만으로 첫째 부인인 문창군주를 박대하기 때문이다. 양성공주는 문창군주를 박대하고 자신을 친근하게 대하는 소경문의 태도를 두고 그 원인을 이민족과의 혼인을 주선한 유세형에 대한 반발과 이민족인 자신을 속으로는 더럽다고 여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부에서의 입지에 대해 불안해<sup>23)</sup> 한다. 복원으로부터 소부에 들어온 양성공주에게는 소경문 외에는 의지할 상대가 아무도 없다. 더욱이 양성공주의 친정인 복원은 명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양성공주가 혼인 후에도 전쟁 불모로서 명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양성공주로서는 자신으로 인해 소경문을 비롯해 소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주나 생존의 위

22) “소취 처음으로 눈을 드러 공주를 지시 보니 혼갓 미뫼 절세홀 분 아니라 미우의 정 명지교 나타나고 안모의 덕기 비취여 상냥혼 기질과 표일혼 신치 결군혼 스군지오 계차혼 널당뫼라 도로혀 기거 심각하디 내 평성 문창 갓혼 숙녀명완을 어더시니 눈의 타인을 먼히여 빅슈동낙고져 하더니 의의 초인이 니르니 또 엇디 연분이 아니리오 내 당초 더를 알오 미 호디의셔 심당하여 형실이 천누호므로 친히 잔을 들고 내 압히 와 혼인을 구하니 넘치 도상하여 가히 볼 것 업슬 위인이라 하였더니 츠 ” 형시 점 ” 기이하여 고금의 듯디 못하던 의협과 디시라 맛당이 후디홀 거시오” <유씨삼대록>17권 49~50면.

23) “일즉 성문의 드러온 후 공의 원비를 보니 덕형과 위인이 세상의 독보하디라 우리 ” 효측고져 하더니 명공이 심각디 아닌 고집을 발하여 첩의 연고로 군주교 불평하미 만하 군취 부형이 청구하여 도라가시니 스시 엇디 안심하리오 이제 상원부인이 지당하디 아닌 전첩이 군후로 열낙하미 떼면의 불가함을 모르는 배 아니라 그옥이 슬피건디 군휘 복디 비우의 정이 흡연하거늘 그 부형이 스정을 도라보디 아나 공의 원티 아닛 첩을 인연 일우를 혼하여 잠간 격노하고 공치하여 부형의 년좌를 쓰나 실은 군주를 염고하미 아니라 첩을 증염하는 근본이니 …… 공이 일편도이 이덕으로 더러이 녀기미 참분하니 세상의 구차히 세상의 이시미 쾌히 죽음만 갖디 못홀디라 공은 모르미 홀이브정하 케도를 그치고 출하리 덕하 대로 날을 박디하고 군주를 존등하여 도히 화락하고 가식하는 형스를 말올지어다 하더라” <유씨삼대록>17권 81~85면.

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경문이 양성공주를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실은 새로 들어온 이를 배려하는 차원이나 진정에서 우려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인과 부인에 대한 반발심을 표출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는 점은 소경문이 양성공주를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둘째, 복원의 풍속을 버리고 명의 풍속을 익히는 과정에서 양성공주는 주변인들과 마찰을 빚으며 불행한 혼인 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소경문과 문창군주의 부부갈등이 해결되고 나서도 양성공주의 소부에서의 삶은 힘든 것으로 제시된다. 양성공주가 문창군주의 교화를 받아 성질이 유순해지고 소부에서의 생활을 순탄하게 했다고 언급되지만 그 시기가 정확히 제시되지는 않는다. 것처럼 교화되기 전까지 양성공주는 시비와 복첩이 죄를 지으면 용서하기보다는 형벌을 엄하게 해 채찍이나 발로 찼다고 언급되며, 이를 두고 몽골족의 풍습을 버리지 못했다고 여긴 소경문이 경계하면 양성공주는 자신을 위협해 제압하는가 여기면 분해했다고 제시<sup>24)</sup>된다.

이와 함께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양성공주가 유세형이 죽었을 때 삼년상을 치르는 대목이다. 유세형의 죽음과 문창군주로부터의 양성공주 교화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양성공주의 죽음을 언급하고 난 후 서사가 거슬러 올라가 유세형의 죽음을 보여줄 때 양성공주는 소경문이 예법이 아니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혼인시켜준 것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깨끗하게 유세형의 삼년상을 마치는 것으로 언급<sup>25)</sup>된다.

24) “공궐 위인이 세치고 강호므로 혹 시비 복첩이 죄를 어든즉 일호 용서호는 일이 업서 형벌이 엄하고 시비를 채로 치며 밧노 츠니 사람이 너의 호풍을 면티 못호를 개탄호고 슈춘휘 크게 불열호여 네의로 경계호기를 여러 번 호디 듯디 아닐 분 아나 즈가를 협제호는가 분연호더니” <유씨삼대록>18권 31면.

25) “양성공주 진공의 상스를 듯고 통곡호며 삼년거상호여 그 은혜를 갑호니 소휘 가티

이는 양성공주가 소부에 동화되고자 노력을 하면서도 끝내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셋째, 양성공주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요절하는 것으로 서사에서 사라진다는 점이다. 소부에서의 명인들과 양성공주의 관계를 보면 양성공주에게 명인들처럼 동화될 것을 요구했고 양성공주도 동화되고자 노력했으나 그리 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양성공주는 고국을 그리워하다 30여세의 나이에 죽음으로써 서사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양성공주는 자식을 두지 못해 문창군주가 자신의 둘째아들로 후사를 잇게 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양성공주는 소경문과의 혼인생활에서 동화에 실패한 채 주변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 2. 복원 여성의 인식 변화

### 1) 명인(明人)에 대한 복원공주의 인식 : ‘문명’과 ‘무의(無義)’

<유씨삼대록>에는 양성공주와 그 주변 한족들의 관계를 통해 이민족 간의 인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제시된다. 우선 양성공주가 혼인을 전후로 한족에 대해 가졌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

아니를 니르나 듯디 아니터라” <유씨삼대록>20권 23면.

26) Berry는 문화접촉을 한 당사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정서, 행동, 인지적으로 나누어 두 개의 차원, 즉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는가,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통합(integration), 모국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는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로 분류했다. John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Volume46, Issue1, 1997, 5-34; 김진숙, 이혁구, 이근무,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결혼적용 연구-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제30호, 2010, 135~166면 참조.

양성공주를 비롯한 복원인들은 명인에 대해 문(文)을 숭상해 무(武)를 소홀히 하는 이들<sup>27)</sup>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양성공주는 명은 문명화된 곳이며, 명인이 위엄과 의리를 갖추었다고 여긴다. 양성공주가 천사로 온 소경문과 혼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소경문의 풍채의 뛰어난과 그 위세의 당당함을 보고서였다.

그런데 이 같은 양성공주의 판단은 명에 들어오면서 흔들리게 된다. 처음의 생각처럼 양성공주는 혼례식에서 문창군주의 단정하면서도 엄숙한 모습을 보고 높이 평가하고 공경하고자 마음먹기도 하며, 자신의 혼사를 황제에게 청한 유현이나 유세형에 대해 위엄 있는 풍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명인을 당당하며 위엄을 갖추고 있고 문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성공주는 혼인 과정을 통해 한족과 실제 접촉을 하면서 명인 가운데 한 사람인 소경문에 대해 혼인 전에 판단했던 것과 달리 의리가 없다고 여긴다.

금일 말이 발하매 능히 그치디 못하느니 당초 부왕이 명공의 위인 지조를 사랑하여 머뜨러 쓰고져 하시니 일이 일면 공이 번국 신해요 일이 니디 못하면 공이 절을 직회 통훈이 될디라 첩이 네의를 아디 못하여 스스로 부셔 굴히믈 넘나거니와 또흔 부왕기 힘써 허신희를 원흔 고로 부왕이 비록 공의 불복하믈 노하여 죽이고져 하나 북희의 가도몬 실노 첩의 간하믈빠라 이는 공을 한 번 구하미오 및 북희에 가 공이 휘하로 더브러 기아하미 급하믈 탐지하고 하나흔 우리 종사를 위하여 공이 죽은즉 연도의 문죄하는 화를 두리미오 하나흔 공의 통절을 앓겨 지산을 허러 냥미를 니우니 이 슈양산이 있고

27) “당군 왕슈길이 곁오디 명도는 유혹을 숭상하고 궁마는 소여홀디라 격서를 보아도 문필이 희한히지 무에 우용흔 무리 아니라 족히 두렵디 아니히니 명일 교전하므로 닐너 보내쇼셔” <유씨삼대록>16권 40면.

주리미 업스믈 빼 곱 공을 두 번 살오미오 밋 공이 병이 들호여 명지 슈유의  
흔 텃 약을 엇디 못홀 적 내 친히 약을 가져 공을 구하니 이는 공을 세 번  
살오미라 왕시 공을 구하고 아국을 파호여 우리 남민 볼모 되여 이에 니르매  
공이 문득 전후 근노호여 명을 구호 은의를 저버리고 혼갓 내 몸이 이덕이를  
더러이 녀여 진공과 연회 의리를 잡아 농당의 주달호여 친스를 권호를 뉘이  
녀여 균주를 거긋 박디호고 첩을 짐긋 후디호니 이 엇디 군즈 당부의 헝시리  
오 우리 세조 무덕황테 텃하를 일광호시매 화이 통합호고 건곤이 혼 빗치라  
일부도 그 신해 아니 " 업고 척토도 원나라 싸 아닌 디 업더니 텃쉬 명도의  
도라오니 물너 번신이 되여시나 당초로써 싱각건디 텃하 싱녕과 세환갑죽으  
로 명도의 식녹호는 재 뉘 그 선세 우리 원국 신해 아니리오 공이 일편도이  
이덕으로 더러이 녀이미 참분호니 세상의 구차히 세상의 이시미 쾌히 죽음  
만 갓디 못홀디라 공은 모르미 홀이브정호 췌도를 그치고 출하리 디호 대로  
날을 박디호고 균주를 존뎡호여 도히 화락호고 가식호는 헝스를 말호지어다  
호디라 <유씨삼대록>17권 83-85면

위의 인용문은 혼인 직후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소경문의 태도를 위선  
적이라고 판단한 양성공주가 이를 소경문에게 토로하는 대목이다. 자신을  
후대하고 문창군주를 박대한 것의 근본 원인을 소경문이 몽골족을 더럽  
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여긴 양성공주는 소경문에게 복원과 명이 다를 바  
가 없다고 언급한다. 양성공주는 천수에 따라 중원을 원이 차지하기도 명  
이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라며 원이 중원을 차지했을 때에는 지금 명의 신  
하들의 조상들이 원의 신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 원의 후예인 자신과  
소경문을 대등한 위치에 둔다.

그 후 양성공주는 복원에서 위기에 처한 소경문의 목숨을 세 번이나 구  
했던 것<sup>28)</sup>에 대해 그 의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을 문창군주와의 부부갈등

28) 복원에 있을 당시 소경문은 양성공주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목숨을 구하는데 이를

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이는 군자나 대장부가 행할 행동이 아니며 의리 없는 행동,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한족 남성인 소경문에 대한 양성공주의 인식은 먼발치에서 보았을 때 가졌던 생각에서 혼례를 거치고 생활에서 맞닥뜨림으로써 ‘당당하고 위엄을 갖춘 문명의 세례를 입은 사람’에서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이다. 즉, 한족에 대해 문명화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양성공주는 경험을 통해 실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그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 2) 복원공주에 대한 명인의 인식 : ‘무례(無禮)’와 ‘의기(義氣)’

혼인 과정을 거치면서 양성공주가 명인에 대해 가졌던 생각에 균열이 오듯이 명인들 역시도 양성공주와 접촉을 하면서 복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동적으로 하게 된다. <유씨삼대록>에서 명인들은 복원인에 대해 문명의 교화를 받지 못해 미개하고 야만스럽다는 시선을 보인다. 이같이 복원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성공주에게도 그대로 투영된다.

양성공주에 대한 이 같은 시선은 혼인 후에도 지속된다. 이는 혼례 당일 스스로 소경문의 첫째 부인인 문창군주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먼저

---

두고 명인들은 양성공주의 판단력과 행동이 명인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의리 있는 행동이라 평가한다. 복원에서 양성공주가 소경문을 구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소경문은 혼례식 도중 칼을 빼 양성공주를 위협하며 혼인을 거부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양성공주는 복원왕에게 천사(天使)를 죽였을 경우 명과의 관계를 생각해 우선 유배 보낼 것을 권해 소경문의 목숨을 구한다. 유배지에서 소경문과 그의 수행원 100여명이 기아에 시달려 위기에 처하자 양성공주는 수개월동안 하루 두 끼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유배지에서 소경문이 병을 앓자 양성공주는 직접 도복을 입고 와 진단을 하고 약을 건네 소경문의 목숨을 살린다. 이 행위를 두고 유현은 ‘의기가 천추에 하나라고 하며, 이 같은 인물은 중국에서도 얻기 어려운데 오랑캐 땅에 인재가 있다니 기특하다고 평가하면서 황제에게 소경문과 양성공주의 혼인을 청한다.

인사를 올리는 모습<sup>29)</sup>이나 혼인을 주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내외법을 지키지 않고 먼저 소부에 인사 온 유세형과 유현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모습<sup>30)</sup>을 두고 소경문을 비롯한 소부 구성원들과 유세형, 유현은 궤이하다거나 오랑캐의 풍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고 멸시하는 시선을 보내는 것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명인들에게 양성공주가 이처럼 미개의 대상으로만 비취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동시에 명인들은 양성공주를 명인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의협심을 갖춘 여성으로 평가한다. 양성공주가 소경문을 세 차례의 위기에서 구했던 사실은 소경문뿐만 아니라 황제와 유세형, 유현과 같은 명의 남성들에게 ‘의협’, ‘의기 있는 행동’으로 거듭 칭해진다.<sup>31)</sup> 이는 소경문이

29) “공주 네를 파혼 후 상원부인기 보이는 절치를 좌위 미쳐 니르디 아나셔 먼저 공슈 퇴석하여 구고기 품뎌 왓 접은 이덕의 천흔 녀지라 황은으로 귀부의 니르러 군즈를 조츠매 녀군기 몬더 현알흐미 올흔디라 구고는 붉이 그르치시를 청흐는이다 제국이 다 놀나고 구괴 우디호여” <유씨삼대록>17권 45~46면.

30) “문득 호녀 두어 빵이 먼니 그르치고 기리 짓케여 굴오디 우리 쥬뵈 나오시는이다 모다 놀나 못고져 하디니 불셔 양성 공쥬 표연이 당전의 니르러 진공을 향하여 머리 조아 샤펬호여 …… 진공이 의외 더를 만나 심하의 희연하디 임의 전일 서로 보미 잇고 면전의 당호여 박절이 아니 보디 못홀디라 몸을 니러 당의 오르를 청흐니 …… 정언간의 성의빅 형대 즈덜을 거느려 드러와 부모 존후를 못즈온 후 니어 제람빅 부츠의 설화와 좌등 문건을 던하디니 말단의 양성공쥬의 말을 고흐니 초공이 쇼왈 일인 즉 호염즉흐나 므츨미 호풍을 먼티 못흐미라” <유씨삼대록>18권 25~31면.

31) 이같이 양성공주를 칭하는 대목은 소경문을 위기에서 구한 일 이외에도 양성공주가 복원의 항복을 요청하러 왔을 때에도 나타난다. 명은 복원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복원을 아예 도륙을 내고자 하는데 이를 걱정한 복원왕은 아우 침복원달을 장수로 와 있던 유현에게 보내 항복을 요청하나 유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양성공주가 남복을 하고 유현을 찾아가 명과 복원이 실은 대등하지 않느냐면서 승전국으로서의 위엄을 갖춰 항복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는데, 당당하면서도 위엄을 갖춘 양성공주의 모습을 보고 유현은 읊을 하는 예까지 갖춘다.: “양성공쥬 양연이 거러 당전의 님하야는 연휘 읊복을 그초고 큰 칼을 집혀 교위에 안자시니 정히 모진 범과 신기흔 농긔호여 미우의 므” 흔 한풍은 상설이 늘님 그고 전후 좌우의 용스 밍장이 버러 디외 정계하고 기치 도요흐니 일건의 송구흔 배로디 공쥬 전연 부

혼인 당일 양성공주를 보고 의협과 지사의 모습을 갖추었으니 후대하겠다는 다짐을 할 정도로 양성공주에 대해 애초 가지고 있던 인식을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단 명인들이 양성공주와의 접촉을 계기로 복원인 전반에 대해 시선을 확장하거나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적으로 양성공주와 함께 전쟁 볼모로 왔던 복원 세자 침목달은 양성공주의 요청으로 복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데, 이때 유세형이 세자는 영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리고 있어도 볼모로서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양성공주에 대해서도 미개인이자 야만인이라고 멸시하던 명인들의 시선이 혼인 전후로 온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분적일지라도 양성공주와 접촉을 가지면서 양성공주에 대해 명인들의 인식은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앞서

---

동하고 기리 읍하여 곶오더 무지 달지 비록 아는 거시 업스나 연이나 명공이 세터 상문으로 물망이 산두의 이서 슈하의 십만등을 녁하여 일월지년의 천여 리를 당구 대진하니 가히 조국공의 후를 니엇거니와 쏘흔 적국을 업슈이 녁이른 지사의 일이 아니오 아국이 명도로 더브러 즈웅을 드토매 피츠 스신이 상경하는 되 잇거늘 아국이 턴스틀 가두고 장군이 아국 스신을 교위 우히셔 만모하여 더접하니 등국도 녁의를 모르미오 번국도 실네하여시니 엇디 피츠의 무식함미 아니리오 우리 비록 삭방의셔 상당하여시나 즈유로 영웅호걸을 스모하여 텃하의 안공하더니 흥혀 장군 숙달의 석권 호진하는 지조를 항복하여 스신을 보내여 도공함을 청하거늘 장군이 쑥지저 물니 치니 일즉 드르매 텃디 초판 후 이덕과 등국이 병립하여 음양쇼당함 갓하니 명도 태조의 신무와 모든 원훈의 웅지로도 흥나산 아러 각단을 업시터 아났고 흥농강 쇠드리를 건너디 못하니 텃되 본디 호성하시고 물을 앗기시니 엇디 우리 원으로 하여곰 밋츨니 혼 나라홀 두어 세조의 향화를 닛게 아니시리오 연즉 장군의 고집히 항복을 밋디 아니코 초멸코져 함미 텃의를 거역함이라 반드시 양해 이시리니 장군은 녁이 생각하라 연휘 그의 피 동인하고 언변이 여류함을 보고 크게 고향이 녁이디 …… 연휘 칼홀 더디고 교위에 느려 읍하여 곶오더 군은 당세의 현시로다 가히 앗갑다 더 갓흔 위인으로 이력의 짜히 나미여 원컨디 놓흔 성명을 드러지라 공쥬 샤왈 장군의 파흔 말습을 엇디 당하리오 복은 본디 호왕의 쇼지라 성명은 텃목달이라 호는이다 연휘 좌를 주고 은근이 더접하여” <유씨삼대록>16권 52~56면

<유씨삼대록>이 이민족에 대해 구체적인 조상을 세우고, 한족과는 다르지만 문물이나 제도를 갖춘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민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점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이민족을 단지 오랑캐나 야만스러운 대상이라는 단일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나아가 명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며 부분적으로는 한족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질들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고 보는 것이다.

### Ⅲ. 이민족 여성 형상의 의미와 기능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씨삼대록>은 이민족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내부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유씨삼대록>은 이민족을 한족과는 다를지라도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대상이라고 인식하고자 한다. <유씨삼대록>은 복원공주를 비롯한 복원인들을 ‘오랑캐’로만 지칭하지 않는다. 이들의 조상을 복원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복원인으로 지칭하며 그 나뭇의 문물과 제도를 지니고 있는 종족으로 묘사한다. 또한 복원공주가 소경문의 목숨을 구하게 하는 과정에서 의리와 의협을 발휘하게 하고 이를 훗날 한족 남성들이 기개 있는 행동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복원공주에게 발화와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표현하게 한다. 이때 복원공주는 사적 차원의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일을 발화하거나 판단한다. 소경문을 구한 것은 혼인하려던 이를 구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명에서 보낸 천사를 죽였을 경우 복원과 명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는 훗날 한족 남성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복원공주는 한족 남성들과 복원이 전쟁을 일으킨 것의 정당성을 몽골족과 한족이 대등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어 2차례에 걸쳐 직접 발화를 하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 한족 남성들은 ‘괴이한 소리’라고 응수를 하지만 그 이상의 반론이나 행동을 제기하지 않는다.

<유씨삼대록>이 모든 이민족 내지 모든 몽골인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복원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예의나 신의의 문체는 그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기보다는 한족들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한계가 있을지라도 <유씨삼대록>이 몽골족이나 양성공주에 대해 한족과 다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이 작품이 이민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해보고자 했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유씨삼대록>은 이민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면서도 내부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유씨삼대록>에서 이민족 간의 혼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계화 된 구도로 설정되어 있다. 소경문과 양성공주가 속한 한족과 몽골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민족이다. 그런데 이민족 간의 혼인이 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띤 <유씨삼대록>에서 두 민족은 대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한족이 내부인이 되고 외부에서 온 몽골족이 이방인이 되는 구도를 만든다. 이 구도에서 내부에 있는 한족이 받아들이는 외부인은 이민족 여성에 제한되며, 그 여성의 신분은 내부로 들어올 때는 전쟁 볼모에 처하나 외부에 있을 때에는 이민족 국가의 왕족 정도의 위치에 있던 이이다. 이와 함께 내부로 편입한 이민족 여성을 주변화 되고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하는 시선들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 작품의 이민족에 대한 경직되고 배타적인 태도를 확인하게 한다.

그런데 위계화 된 혼인구도는 <유씨삼대록>에서 소경문과 양성공주의 혼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유세창과 설초벽, 유세필과 순씨의 혼인에서도 발견된다. 설초벽과 순씨는 한족 상층 출신이기는 하나 어려서 부모가 죽어 고아와 다름없는 위치에 놓인 인물들이다. 전임 예부상서 설경화의 딸이나 어려서 부모를 잃은 설초벽은 남장을 하고 병법을 익히다 유세창과 만나 과거를 본 후 신분을 밝히고 황제의 주선으로 유세창의 둘째부인이 된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순씨는 부친의 친구 유우성의 주선으로 그의 아들 유세필의 둘째부인이 된다. 이처럼 설초벽이나 순씨는 한미한 신분으로 인해 둘째부인의 지위로 혼인을 할뿐더러 혼인 초반 유씨 가문 구성원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는다. 혼인을 앞두고 유씨 가문 여성들은 사천지방에서 성장한 설초벽에 대해 ‘변방 괴물’<sup>32)</sup>이라 평한다. 한편 유씨 가문 여성들은 순씨를 두고 평소 행실이 더럽고 추하다 여겨 모임에 초대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sup>33)</sup>

그러나 양성공주와 달리 설초벽과 순씨는 유부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동화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설초벽은 양성공주와 마찬가지로 혼인 후 유세창과 그의 첫째부인 남씨의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이는 유세창이 설초벽을 좋아해 남씨를 찾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경문이 문창군주의 부부갈등에서 양성공주를 도구화하

32) “샤어스 부인이 낭쇼왕 삼형이 남저의 슈노호미 분의 넘여 변방 괴물을 어더 계시니 그러커든 득현의 쥬야 좀겨 그리 흑호여 계시리잇가” <유씨삼대록>6권 4~5면.

33) 순씨에 대한 평가는 유부 여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에게서도 확인된다. 순씨는 지나칠 정도로 못생긴 것으로 묘사되며 평소 행동이 어리숙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소개된다. 결국 위의 모임에 초대된 순씨는 과음으로 인해 취하며, 평소 질투하던 유세필의 첫째부인 박영아를 구타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금일은 소형의 말씀마치 형태 모다 즐기사이다 드디어 순시를 청하니 낭한님 부인이 말녀 왈 츠인이 니른 즉 아담흔 못마디에 취루흔 풍패 니러나리니 브절 업도소이다” <유씨삼대록>7권 45면.

던 것과 다르다. 또한 육도삼략과 병법을 익혀 무예에 능한 설초벽의 능력은 유세형이 서역을 정벌하러 나갈 때 평서지장도를 주어 전술을 세우는 것을 돕거나 그의 아들 유몽이 반란을 진압하도록 도와주는데 발휘되어 유부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순씨도 유세필을 비롯한 유부 인물들의 교화를 받아 어리숙한 행동들이 차츰 줄어들고 예법을 익혀나간 것으로 서술된다.

설초벽과 순씨가 유부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은 이들의 자식 출산 여부이다. 유부의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곧 설초벽과 순씨가 유부 인물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설초벽은 유세창과 남씨의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후사가 끊어진 친정가문의 제사를 잇기 위해 유부로부터 나가 새로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내지만 유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며 유세창과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낳는다. 게다가 설초벽의 아들 유몽은 후에 반역을 진압한 공을 인정받아 왕작을 제수받기에 이른다. 순씨는 유세필과의 사이에서 5자 4녀를 낳는다. 이런 점들은 몽골족 복원인 양성공주가 명에 들어와 동화에 실패하고 끝내 자손을 낳지 못하고 30세에 요절하는 것과 다름을 확인하게 한다. 설초벽과 순씨의 혼인은 그 과정에서 위계화 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원인이 한족 내에서의 지위나 권세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끝내 인정받거나 동화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반면, 양성공주의 혼인이 위계화 된 원인은 민족이 다르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이 혼인 자체가 국가적 문제의 처리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끝내 배타당하고 동화에 실패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이민족 여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기능을 한다. 첫째, 한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유씨 가문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몽골족에 비해 문명화 된 문

화를 가지고 있는 한족이 미개한 몽골족 여성을 교화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한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게 하며, 받아들이기 곤란한 전쟁 불모의 처리에 유세형과 유현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은 유씨 가문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게 한다.

둘째, 이민족 여성과의 혼인은 한족 내부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명인과 복원인이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은 예의와 의리의 갖춤이다. 혼인 과정을 전후로 양성공주는 명인은 예의를 갖추고 문명화된 이들이라 생각하던 것에서 그 안에는 혹 신의를 갖추지 못한 이도 있음을 발견한다. 군자로 칭해지던 소경문은 <유씨삼대록>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진양공주의 사위이다. 복원에 천사(天使)로 파견될 정도로 문장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갖춘 소경문은 양성공주와의 혼인을 통해 실은 인간으로서의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의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임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민족과의 혼사를 추진한 장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소경문은 양성공주의 존재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며, 복원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양성공주에 대해서도 신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경문의 행동들은 그가 과연 누차 칭해진 것과 같이 뛰어난 대장부이자 군자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다음으로 이는 잠재되어 있던 유부와 소부의 권세 차이로 인한 갈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이민족을 받아들일 때에 내부에 있던 이들은 이민족으로 인해 결속을 공고히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양성공주의 혼인을 주선한 것을 두고 유세형과 소경문은 옹서갈등을 벌이며 이는 소경문이 문창군주를 폄박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유세형의 행동들이 합당한 행동인가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한다.

유세형과 문창군주는 <유씨삼대록>에서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이며 부덕(婦德)을 갖춘 여성으로 소개된다. 소경문이 복원에 천사로 파견 갈 때에 이미 문창군주가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부부생활이 화목했으리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소경문과 문창군주의 부부생활을 평범하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들이 발견된다. 문창군주는 혼인 후에도 시부모의 허락을 받아 1달에 20일을 친정에서 보내고 10일을 소부에서 보내는데, 이는 유씨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들이 친정에 잠시 다녀오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문창군주의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유부가 소부보다도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경문과 문창군주의 부부갈등이 해결되고 난 직후 뒤이어 제시되는 서사를 통해서 짐작 가능하다. 갈등 후 곧바로 제시되는 것은 문창군주가 시아버지의 생신 잔치를 화려하게 벌이는 일로, 과장 섞인 표현이기는 하겠으나 황친과 귀척(貴戚)을 비롯한 인근 사람들 수천 명이 하객으로 왔으며 이들을 교방의 풍물과 산해진미로 접대할 정도로 이 잔치는 성대하게 열린 것으로 언급된다. 이때 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들어간 재물은 소부의 것이 아니라 유부의 것으로 소개된다. 소씨 가문은 대대로 청빈한데다가 가족이 많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재물이 없기에 문창군주가 부친에게 부탁해 비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잔치를 통해 소부 사람들은 다시금 문창군주와 유씨 가문에 고마워하는 반응<sup>34)</sup>을 보이며, 이후 문창군주는 소부로 복귀 후 이전과 비슷하게

34) “군쥬 츠일 존당부모를 비스하고 구가로 나아갈시 진공이 당손시로 지물을 내여 연석을 판출하라 하고 엄태감으로 외구를 움겨 군쥬의 현슈하는 위의를 도오라 하니 아역과 궁관이 도로의 나역하여 진딘 이국과 연국 부귀를 기우려 소부의 금슈차당이 빅운의 다하고 운무병풍이 십니의 돌너 교방풍물과 산진희찬으로 빈직을 접더하니 이 다 군쥬의 성효와 진궁 부귀로써 즈식 되엿는 자의 효를 다하고 부모 되엿는 자의

한 달에 15일은 유부에서, 15일은 소부에서 머무른다.

이로 미루어볼 때 도덕적인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유세형과 문창군주가 소부와 시대과의 관계에서 벌이는 행동들을 예법이나 부덕의 잣대에서 평가할 때 칭송받을 행동만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유부와 소부의 권세 차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편입된 양성공주로 말미암아서이다. 소경문은 그간 유부에 대해 지녀왔던 감정들을 한쪽 내부의 권력문제와 거리가 있는 양성공주의 편입 과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 돌려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이 이민족 여성과의 혼인은 그 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부의 문제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측면을 가진다.

#### IV. 이민족 여성 형상의 소설사적 의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국문장편소설에서 이민족을 만나는 계기는 주로 피신, 표류, 전쟁이 제시된다.<sup>35)</sup> 이 가운데 대다수의 작품에서 이민족을 만나는 계기로 전쟁을 설정하고 있다. 전쟁 중 만난 이민족과의 혼인은

---

그르치를 다하여 제람빅이 칠즈를 두어시나 군쥬긋흔 통부를 어더 이러트 거록흔 영양을 바드니 슈춘휘 이 때를 당하여 악당의 후덕과 부인의 성효를 크게 감격히 녀이고 즈가 부즈 냥디후록과 부귀로 혼 번 슈석을 못홀 거슨 아니로더 소문이 더”로 칭한흔 등 여러 형태 이셔 소솔이 번다흔므로 모부인이 근노흔시니 즈가 녹봉과 상사를 다 부모고 속하여 능히 이 일을 관출하미 어렵더니 생각디 아닌 군쥬 이러트 성비하고 즈가의게 효용이 품하여 존당부모의 고희고 빈직 모호를 니르니 탄복호를 이기디 못하여” <유씨삼대록>18권 13~15면.

35) 고전소설 줄거리집성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민족과의 접촉을 살펴보았을 때 피신과 표류를 계기로 이방인을 만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피신 - <몽옥쌍봉연록>, <삼강명행록>, <유이양문록> / 표류 - <완월희맹연>, <윤화정삼문취록>, <임씨삼대록>; 조희웅, 『고전소설 줄거리집성』1,2, 집문당, 2002.

보다 이민족과의 접촉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이 형상은 비교적 정형화된 모습을 띤다.

첫째, 국문장편소설 속에서 내부인 한족으로 편입되는 이민족은 대부분 여성으로 나타난다. 우선 이민족 혼인담 속 성별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혼인 성사의 유무를 떠나 이민족이 한족과 혼인은 한족 남성과 이민족 여성의 조합이나 한족 여성과 이민족 남성의 조합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국문장편소설에서 이 조합은 한족 남성과 이민족 여성으로 제시된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이민족 혼인담의 대상자는 한족 남성 정천홍과 운남의 운영공주이다. 한편 혼인이 성사되지 못하고 음란하다고 평가를 받은 채 한족 남성에게 죽음을 당하기는 하는 이민족 여성의 모습은 <소현성록>과 <현몽쌍룡기>에서 확인된다. <소현성록>에서는 운남왕의 왕후인 팽환이 한족 남성 소경문에게 반해 애정을 요구하며, <현몽쌍룡기>에서는 운남의 청란공주가 한족 남성 조무에게 반해 애정을 요구한다.

<임씨삼대록>에는 국문장편소설로서는 드물게 한족 여성과 이민족 남성의 조합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 조합은 음란한 행실을 벌였다고 평가받은 한족 여성에게 징벌로 가해진 것이며 조합을 만들어 낸 주체가 한족 남성으로 제시된다. <임씨삼대록>에서는 한족 여성 옥선군주가 타라국 왕과 혼인한다. 그런데 이는 옥선군주가 한족 남성 임창홍과 혼인 후 음욕을 이기지 못해 간부(姦夫)를 둔 것을 벌하고자 시숙부가 옥선군주를 배를 태워 표류하게 해 타라국에 도착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옥선군주의 자발적 의지로 타라국을 찾아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한족 여성이 만난 이민족 남성의 모습은 인간이기보다 괴물에 가까운 형상<sup>36)</sup>으

36) “옥선이 월식을 썬여 왕의 위인을 보니 괴괴망측흔지라 턱 으리 거문 혹은 뿔두던긔 치 너밀고 유즈 갖흔 코히 검고 푸른 뇨 우히 티악긔치 노헛시니 야치도곤 흥흥고 청독 갖흔 청순이옥은 귀가지 썬여졌거늘 세 이룸도 넘은 몸을 향신의 접히고 토목 갖흔 다리로 즈가의 옥각을 눌녔고 토목 갖흔 팔노 즈가의 세요를 썬안고 쇠갈고리

로 묘사되고 있어 이민족에 대한 멸시와 비하의 시선을 노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문장편소설은 내부인 한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그 이방인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주체는 한족 남성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씨삼대록>에서도 이민족 혼인의 대상자는 한족 남성 소경문과 몽골족 여성 양성공주이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는 이 조합뿐만 아니라 한족 국가인 명에 들어오는 이민족으로 몽골족 세자를 함께 설정해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좀더 다각도에서 생각해볼 여지를 마련한다. <유씨삼대록>은 전쟁불모로 복원 세자 침목달과 양성공주를 명에 들어오게 한 후 양성공주에게만 명인과 혼인하고 명에 거주하게 하며, 침목달은 복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 작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으로 여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보다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민족과의 혼인을 두고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내부에 있는 한족이 이를 꺼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이민족에 대해 미개하고 야만스러우며 한족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다수의 국문장편소설은 이민족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송(宋)이나 명(明)을 배경으로 하는 국문장편소설에서 전쟁에 출전한 한족 남성 장수를 보고 반한 이민족 여성이 혼인을 요청할 때에 한족 남성은 이를 거절한다. 설령 이민족 여성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 한족이 있더라도 이는 곧 주변에 의해 제지당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조씨삼대록>에는 오랜 시간 유배 생활을 하다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설강이 돌아오는 길에 이민족 공주를 보고 한 순간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치는데, 이는 곧바

---

꺄흔 손으로 섬능 꺄흔 가슴을 어루만지며 인꺄여 잠드러 코 고으는 소리 늑월 염천의 줍기 메운 쇠소리 꺄흔니” <임씨삼대록>18권 64~65면.

로 곁에 있던 한족 남성에게 의해 제지당한다.<sup>37)</sup>

운남공주 운영과 한족 남성 정천홍이 혼인하는 <명주보월빙>의 경우, 정천홍과 혼인하고 싶던 운영공주는 남복을 하고 시비와 단둘이서 정천홍을 찾아 10개월에 걸쳐 도로 유리를 하며 송으로 오는데 이를 두고 한족들뿐만 아니라 운남에 남아있던 운남왕과 그 가족들은 운영의 행동이 예법에 어긋난다며 한심해하는 모습을 보여 <유씨삼대록>과 차이를 보여준다. 한편 <소현성록>이나 <현몽쌍룡기>에서 이민족 혼인담은 이민족 왕비가 한족 남성에게 반해 애정(혼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혼인이 성사되지 못할뿐더러 한족 남성이 이민족 왕비의 행실을 음란하게 평가해 죽이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국문장편소설에서 애정 욕망을 보인 여성일지라도 한족 여성일 경우 한족 남성들이 행실이 누추하다고 여길지언정 살해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민족 여성들에 대해 한족 남성들이 즉각적인 처단을 하는 것은 이민족에 대해 미개하다고 보며 한족과 다른 대상이기에 죽이는 것에 대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유씨삼대록>에서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성공주를 맞이들이기 꺼리는 소경문을 통해 한족이 이민족과 혼인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양성공주는 <명주보월빙>의 운영공주처럼 한족 남성에게 반해 혼인을 하고자 먼저 요청하고는 있지만 음란하다고 평가받지 않는다. 오히려 유세형과 유현에 의해 의기가 있다고 그 자질이나 인품을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은 이민족 여성의 혼인담을 다룰 때에 이민족 여성의 자질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한족 남성의 평가를 함께 배치함

37) “설강이 번국 설빈공주를 흠모하여 취홀 뜻을 원슈의게 빗쳐니 원슈 안식을 정히 하고 소리로 닐너 가치 아니물 니르미 십분 준절하니 강이 이씨를 당호여는 조원슈 알물 신명긋치 호는지라 쾌히 세다라 취호기를 쫓치니 조원슈의 어질고 너르며 화호고 엄숙호미 여춘 간인도 감화조복호미 이렇듯 호더라” <조씨삼대록>26권 26~27면.

로서 다른 작품들이 이방인을 다루는 것과 차이를 드러낸다.

셋째, 국문장편소설의 이민족 혼인담 속 이민족 여성은 혼인을 전후로 신분의 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족 혼인담을 다루고 있는 대다수의 국문장편소설은 한족과 혼인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이민족 여성의 신분을 이민족 공주로 설정한다.<sup>38)</sup> 동시에 이들과 혼인하는 한족 남성의 신분은 국가의 대신이며 주로 황실과 인척을 맺은 집안의 자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때 이민족 공주들은 혼인을 하면서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한족 남성의 두, 세 번째 부인이나 첩이 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명주보월빙>의 운남족 출신 운영은 혼전에는 공주였으나 혼인을 위해 공주 신분을 버리고 고국을 등지고 도로 유리를 하며 송에 들어온다. 결국 운영은 정천홍의 첩이 된다.

이러한 점은 <구운몽>이나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이민족 혼인과 변별된다. <구운몽>의 심요연은 양소유가 전장에서 만나 결연을 맺은 인물이다. 양소유가 이국 땅에서 결연을 맺은 심요연의 신분은 토번 자객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출신은 이민족인 토번족이 아니라 한족으로 소개되며 어려서 부모를 잃고 토번에 가게 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문장편소설과 많은 연관성을 보이는 작품으로 언급되는 <창선감의록>에서는 운남왕의 딸 양아공주가 한족 남성 유성희에게 반해 혼인에 성공하는데, 이때 유성희의 배경은 개국공신의 후예이지만 가세가 몰락한 데다 부모가 일찍 죽어 의지할 곳이 없던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구운몽>이나 <창선감의록> 속 심요연과 양아공주의 상황은 국문장편소설의 이민족 혼인담에서 이민족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38) 앞서 언급한 <소현성록>에서처럼 국문장편소설에서 이민족 국가의 왕비가 한족 남성에게 애정욕망을 보일 때에는 정절이데올로기의 작용으로 그 혼인(애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에도 애정욕망을 보이는 이민족 여성의 신분은 왕비로 나타난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씨삼대록>은 이민족 혼인에 성공하는 양성의 신분을 혼전에는 북원공주였으나 혼인과정에서 패전국의 볼모가 되며 결국 소경문의 둘째 부인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유씨삼대록>은 양성공주가 명에 들어오는 계기를 전쟁 볼모로 설정해 이민족 혼인의 문제가 단순한 애정담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부각시킨다. 이민족 여성의 신분을 이같이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유씨삼대록>이 이민족이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다른 고소설작품 군에 비해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신분도 공주 정도의 지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내부 남성의 신분도 국가적인 일에 관여해야 하는 대신 정도의 지위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내부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그 지위의 하락을 감수해 내부와 차별화되어야만 내부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이 이민족을 사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이 작품의 향유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문장편소설의 주된 향유층은 상층 사대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씨삼대록>의 경우, 향유층 가운데에 공주가 하가한 집안인물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그 작가도 공주가 하가한 집안 인물일 확률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다.<sup>39)</sup> 왕실을 비롯한 상층 사대부들에게 국경을 넘는 행위나 이민족을 내부로 받아들이는 일은 사적 차원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이민족에 대한 인식도 이와 같은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이민족 여성 혼인의 형상을

39) 한길연, 앞의 논문, 26면.

통해 국문장편소설이 이민족에 대해 지닌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존재를 여성으로 한정시키면서 동시에 이방인에 대해 민족과 성별의 이중적인 차별이 가해지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V. 결론

본고는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몽골족 복원공주의 한족으로의 편입과정을 통해, 이 작품에 나타난 이민족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작품 속 이민족 여성은 혼인을 통해 한족으로의 편입을 시도하나 결국 한족 내부의 배타성으로 인해 동화에 실패하고 주변화 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 과정에서 <유씨삼대록>은 이민족 여성에게 발화와 판단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양이나 이민족의 문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민족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그리려 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민족 여성의 한족 내부로의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여성에 대한 시선은 한족의 우월성과 한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게 하는 동시에 한족 내부에 잠재해 있던 문제나 인정받던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와 함께 이민족 여성을 사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여성의 형상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씨삼대록>은 한족 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족 인물로 이민족 국가에서 상층 신분을 유지하던 여성인물을 설정하고, 이 인물이 한족에 편입되는 과정을 패전국 불모의 처리 과정으

로 다루고 있어 이민족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국문장편소설 속 이민족의 형상화 방식이나 이민족간의 혼인담 내지는 결연담의 양상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본다면 국문장편소설 향유층들이 이민족에 대해 지녔던 인식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명주보월빙> 1~10, 고려서립, 1986(장서각본 영인본).

<소현성록> 이화여대본 15권 15책.

<유씨삼대록> 국립중앙도서관본 20권 20책.

<임씨삼대록> 장서각본 40권 40책.

<창선감의록>, 이래종 역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3.

<현몽쌍룡기> 장서각본 18권 18책.

김진숙, 이혁구, 이근무,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결혼적용 연구-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제30호, 2010, 135~166면.

미야와끼준코[宮脇淳子], 조병학 역, 『최후의 몽골유목제국』, 백산출판사, 2000, 1~300면.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187~220면.

백옥경, 「조선 전기 향화인에 대한 혼인규정과 여성」, 『역사학연구』 제34집, 41~69면.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1~220면.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의식」, 『어문론총』 5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23~269면.

조광국,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의 경우」, 『개신어문연구』 제26집, 2007, 55~85면.

-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6, 1~230면.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908면.
- 조희웅, 『고전소설 줄거리집성』1, 집문당, 2002, 1~756면.
- 조희웅, 『고전소설 줄거리집성』2, 집문당, 2002, 1~1022면.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제39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30면.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제19호, 국어국문학회, 2009, 171~196면.
- 한문중, 『조선 전기 향화 수직 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5년, 1~227면.
- John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Volume46, Issue1, 1997, pp5~34.

## ABSTRACT

A Study on the Marriage of Foreign Woman and  
its Significance in the *LimSsiSamdaerok*

Choi, Sue-Hyu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arriage of a woman of foreign origin and its significance in the feature-length story in Korean Language, *LimSsiSamDaeRok*. Widely read from the early stage of its kind, the *LimSsiSamdaerok* describes the marriage between Mongolian woman and Han Chinese, and their life in detail. It calls for a scholarly attention as it reveals an aspect in perception on foreigners in the feature-length story in Korean Language.

The marriage in the *LimSsiSamDaeRok* consists of three stages. First, the Mongolian princess Bukwon met a Han Chinese man from Ming dynasty. Second, Bukwon came to Ming as a hostage after Mongol was defeated by Ming. Lastly, she failed to adapt and became an outsider. In this process, the Han Chinese and the Mongolian partially amended their fixed ideas regarding each other.

The *LimSsiSamDaeRok* represents both antagonistic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foreign woman. The wedding process was hierarchical and the foreign woman was not able to adapt to the Han culture. However, in the positive note the woman was given the chance to speak and was deemed courageous although they applied the norms of Ming. As seen here, the marriage in the *LimSsiSamdaerok* promotes the superiority of Han Chinese and in effect the loyalty to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it reminds of the issues embedded in the Han Chinese. Reflecting the national issue beyond the apparent description of romance, the marriage in this story is note worthy as it represents multifold perspective towards foreigners.

**Key Words** *LimSsiSamdaerok*, foreign marriage, Mongolian, Han Chinese, Bukwon, Ming

논문투고일 : 2012. 04. 20  
심사완료일 : 2012. 06. 05  
게재확정일 : 2012. 06. 06